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3년도 제38호

경북 경주시체육회 직장내 괴롭힘 의혹

경주시, 갑질 의혹 제기된 시체육회 간부 수사 의뢰

이승규 조선일보 기자

노골적인종차별에 집중포화 맞자 18개월 만에 두 줄짜리 서면사과

흑인 소녀만 일부러 메달 안 줬다...'인종차별 끝판왕' 아일랜드체조협회

권영은 한국일보 기자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첫 금메달 주인공 태권도 품새 강완진(종합)

이석무 이데일리 기자

항저우 NOW

근대5종이씨아1등인데, 선수는 초등학생 합쳐 55명 "상추만큼 멋진 종목, 많이 같이 했으면"

신원철 SPOTV뉴스 기자

LIV골프 만들고 막대한 돈으로 축구에도 투자

'자산만 831조원'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스포츠워싱? 맘대로 불러라"

이재상 뉴스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경주시, 갑질 의혹 시체육회 관계자 경찰 고발

경주시는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경북 경주시체육회 관계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최근 A씨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안 하면 팀을 없애겠다”는 취지의 폭언과 갑질 등을 일삼았다는 민원을 접수한 뒤, 검도·우슈·육상·트라이애슬론팀 선수 28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했고, 지난 14일 면담 서류를 경찰에 제출했다.

시는 같은 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도 사건을 접수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등을 조사하는 기구로 문체부 장관에게 체육단체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A씨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 경주시가 절차대로 면담과 사건 접수를 진행한 것”이라며 “정확한 사실 관계는 수사 기관에서 밝혀낼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경주시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흑인 소녀만 일부러 메달 안 줬다... '인종차별 끝판왕' 아일랜드체조협회

#. 흑인 소녀가 우쭐한 표정으로 자신의 목에 메달이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시상자는 이 소녀만 쏙 뺐다. 시상대에 나란히 선 백인 소녀들에게만 메달을 걸어줬다. 투명인간 취급을 당한 흑인 소녀는 주변을 둘러보지만 누구도 상황을 바로잡지 않는다.

지난해 3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체조대회 '짐스타트(GymSTART)' 시상식에서 벌어진 일이다. 노골적 인종차별을 포착한 이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뒤늦게 전 세계로 퍼졌다. 대회를 주관한 아일랜드체조협회는 집중포화를 맞았다. 그러나 18개월 만에 내놓은 뒤늦은 사과는 '못쓴 사과문'의 정석이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해"

24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아일랜드 아이리시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소녀의 어머니는 "딸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시상식에서 무시당했다"며 협회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소녀는 당시 대회의 유일한 흑인 참가자였다.

소녀의 가족은 협회가 스포츠계에 만연한 구조적 인종차별을 인정하길 거부하고 시상자와 소녀의 개인적 문제로 축소했다고 여긴다.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도 유색인종 선수 보호와 차별 금지 약속을 비롯한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협회는 "시상자는 이번 일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했으며, 다만 고의가 아니었다고 했다"며 "실수를 인지하자마자 즉시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경기장을 떠나기 전 소녀에게 메달을 전달했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8월 스포츠 분쟁 조정 기구를 통한 중재에 합의했으니 해결됐다"는 게 협회의 기본 입장이었다.

가족들은 '나 홀로 싸움'을 이어갔다. 스포츠계 인종차별에 맞서 온 활동가 켄 맥큐는 "아일랜드 체육계와 정치권의 무관심이 소녀를 보호하지도, 인종차별에 대처하지도 못했다"면서 "아일랜드 인권평등 위원회(IHREC)와 아일랜드 올림픽연맹 등에서도 전혀 지원이 없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국제적 비판 일자... 18개월 만 '두 줄짜리 사과'

18개월간 뭉개던 협회를 움직인 건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미국의 흑인 체조선수 시몬 바일스는 지난 23일 SNS에 "마음이 아프다. 어떤 스포츠에서도 인종차별은 용납될 수 없다"는 글을 올려 소녀를 응원했다. 다른 체조 선수와 유명인들도 영상을 공유하며 여론을 움직였다.

24일 협회는 소녀의 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표했지만 제대로 된 사과는 아니었다. "관계자들에게(To whom it concerns)"라고 사과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두 줄짜리 서면 사과였다. 소녀의 어머니는 "인종차별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다음 흑인 아이는 안전할 것'이란 약속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시상자의 사과도 가로막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시상자는 장문의 사과 편지를 쓰고, 소녀를 직접 만나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협회 측에 전했다지만 가족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가족들은 국제체조연맹(FIG) 산하 체조윤리재단에 이 사안을 문제제기할 계획이다.

아일랜드에선 2017년부터 인도계인 리오 버라드커가 총리를 맡고 있지만 인종차별이 종종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선수단 첫 금메달 주인공 태권도 품새 강완진(종합)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선수단 첫 금메달은 태권도 품새에서 나왔다. 주인공은 품새 종목 간판 강완진(25·홍천군청)이었다.

강완진은 24일 오후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린안 스포츠문화전시센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태권도 품새 남자부 개인전에서 대만의 마윈중을 누르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태권도 품새 종목은 가로·세로 각각 12m의 경기장에서 경연하는 품새는 7명의 심판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뺀 5명의 평균 점수로 성적을 낸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선 예선부터 8강까지 1, 2경기 모두 공인 품새를 펼치고 준결승과 결승에선 1경기 공인 품새, 2경기 자유 품새로 진행된다. 강완진은 공인 품새 고려와 자유 품새로 치른 결승전 1·2경기에서 각각 8.000·7.460점을 받아 마윈중(7.880·7.080점)을 눌렀다.

강완진은 태권도 품새를 대표하는 최고의 스타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에는 남자 단체전에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9년에는 나폴리 하계유니버시아드 남자 개인과 단체 2관왕에 올랐다. 2022년 고양시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와 춘천시 아시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에서도 남자 개인 금메달을 차지했다.

강완진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기대를 모았다. 초등학교 시절인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보면서 국가대표 꿈을 갖게 된 뒤 중학교 진학 후 태권도 품새 종목을 접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길에 접어들었다. 고교 때까지는 공인품새만 연습하다가 2017년 대학교에 입학한 뒤 자유품새를 접하면서 오늘날 세계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섰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2021년 1월 왼쪽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부상을 당해 선수생활에 큰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긴 공백기를 이겨냈고 마침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당시 처음으로 정식종목에 채택된 태권도 품새는 이번 대회에 남녀 개인전 2개 금메달이 걸려있다. 공인 품새가 정해진 동작을 가장 절도 있고 정확하게 소화하는 종목이라면, 자유 품새는 준비한 음악에 맞춰 자유롭게 움직인다. 특히 자유품새는 다양한 동작이 예측불허로 펼쳐지는 만큼 '예술성'을 태권도에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대5종 아시아 1등인데, 선수는 초등학생 합쳐 555명 "성취감 큰 멋진 종목, 많이 같이 했으면"

555명. 한국 근대5종 연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23년 등록 선수 숫자다. 2020년에는 467명이었는데 2021년 열린 2020 도쿄 올림픽 전용태의 동메달 효과로 2021년부터 500명을 넘었다. 그래도 아직은 저변이 두껍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게다가 이 555명은 초등부까지 '영끌'해서 나온 결과다. 그런데 한국은 이 적은 선수로 아시아 1등 지위를 굳히고 있다. 적어도 아시안게임에서는 늘 입상하고 있고, 인구로만 규모의 경제를 꾸릴 수 있는 중국도 까다롭게 여기는 팀이 됐다.

한국 근대5종은 지난 24일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일정을 마무리했다. 전용태(광주광역시청)가 남자부 개인전과 단체전 금메달로 대한민국 선수단 최초의 2관왕이 됐다. 김선우(경기도청)는 개인전 은메달을 차지해 대한민국 첫 메달리스트로 이름을 남겼다. 남자부 이지훈 정진화(이상 LH)는 단체전 금메달, 여자부 김세희(BNK저축은행) 성승민(한국체대)은 단체전 동메달을 얻었다. 한국이 역대 아시안게임 근대5종에서 가져온 전체 메달 수는 금메달 10개 은메달 9개 동메달 8개로 총 27개, 전체 참가국 가운데 가장 많다.

여자부는 2010년 광저우 대회부터 이번 대회까지 4회 연속 아시안게임 개인전 메달을 수확했다. 단체전에서는 2002년 부산 동메달과 2010년 광저우 은메달, 2014년 인천 금메달과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 단체전이 개최된 모든 대회에서 메달권에 들었다.

남자부는 근대5종이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1994년 히로시마 대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대회에서 메달을 가져왔다.

그런데 선수층은 여전히 얇다. 초등부 153명(남84 여69) 중등부 158명(남84 여74) 고등부 130명(남80 여50) 대학부 27명(남20 여7) 일반부 87명(남58 여29), 총 555명이 한국 근대5종 선수의 전부다.

여자부 간판 스타 김선우는 수영으로 시작해 근대5종으로 전향한 사례다. 그런데 이번 아시안게임 펜싱에서 전체 2위에 오르며 시작부터 메달을 기대하게 했다.

김선우는 25일 출국 전 기자회견에서 "근대5종이 힘들고 어려운 종목이기는 하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결과가 아쉬울 때도 있다. 그런데도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다섯 가지 종목을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는 게, 누구나 하지 못하는 스포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매일 다섯가지 종목을 훈련하고 결과로 보답 받을 때 성취감이 크다. 수영 같이 다른 종목을 하다 옮겨왔는데 다른 후배들도 보면서 멋진 종목이라는 것을 알면서 함께 해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무엇보다 근대5종이라는 종목이 더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다. 전용태의 도쿄 올림픽 동메달은 근대5종을 대중에 알린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한국 근대5종 선수가 올림픽에서 처음 입상한 사례였고, 또 대한민국 선수단의 마지막 메달이라는 점에서도 화제가 됐다.

전용태는 "운동선수가 뭔가 명함을 내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큰 대회 메달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지난 도쿄 올림픽 같이 메이저 대회에서 메달을 꾸준히 땀다. 지난 올림픽을 계기로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아 기분 좋다. 이번 항저우 대회를 통해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축하도 많이 받고 응원도 많이 받았다. 이런 점들이 좋다. 이런 좋은 기운으로 항상 하던 것, 5가지 종목 열심히 훈련하다 보면 멋진 기회를 보여드릴 때가 계속 온다고 생각한다"며 꾸준한 관심을 기대했다.

김세희는 "전용태 선수의 올림픽 메달로 많은 관심을 받았고, 아시안게임 준비하면서도 그런 효과를 느낄 수 있었다. 다른 선수들도 모두 월드컵 같은 국제 무대에서 고르게 성적을 내고 있다. 지난 아시안게임도 개인전에서 4개 종목 모두 입상했기 때문에 효자 종목이라는 말도 들었다"며 "다음에는 중계방송도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자산만 831조원'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스포츠워싱? 맘대로 불러라"

무함마드 빈 살만(38)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최근 자신들을 향한 '스포츠워싱'이라는 비난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스포츠워싱(sportswashing)'이란 독재나 부정부패, 인권 침해와 같은 온갖 사회문제 등을 스포츠를 통해 씻는다는 뜻이다. 사우디가 막대한 자본을 통해 스포츠에 투자, 이미지 세탁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22일(한국시간)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빈 살만 왕세자는 스포츠 워싱 논란에 "신경쓰지 않는다"면서 "스포츠 투자를 통해 국내총생산(GDP)이 1% 증가했다. 추가로 1.5%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하는 대로 불러라. 우리는 1.5%를 얻겠다"고 말했다.

이날 영국 BBC는 사우디의 스포츠워싱을 주도하고 있는 국부펀드(PIF)의 자산은 무려 6200억달러(약 831조420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PIF를 앞세운 사우디의 이른바 '오일머니'는 최근 세계 스포츠계를 강타하고 있다. PIF는 골프, 축구, 테니스, 모터스포츠 등 다양한 스포츠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인권 침해, 여성 권리 침해 등으로 악명 높았던 사우디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스포츠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PIF의 대표적인 투자처로는 축구와 골프가 대표적이다.

사우디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인수했고 최근 자국 리그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 네이마르(알힐랄), 카림 벤제마(알이티하드) 등 세계적인 스타들을 대거 영입했다.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에 고무된 사우디는 자국에서 월드컵 개최도 노리고 있다. BBC는 "사우디는 올 12월 최초로 FIFA 클럽 월드컵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2030년 또는 2034년 월드컵 개최를 놓고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골프 또한 LIV골프가 대표적이다. 복수의 유명 골프 스타들을 영입했던 LIV는 최근에는 적대적이었던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의 합병까지 논의하고 있다.

이 밖에도 포뮬러원(F1)이 2021년 사우디에서 첫 경주를 개최했으며 2019년 복싱 챔피언 앤서니 조슈아가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앤디 루이스를 꺾는 등 각종 대회를 유치했다. 테니스의 경우에도 향후 ATP 결승전을 치르기로 5년 계약을 맺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주간 스포츠 소식

[한민희의 Law&Rule] 프로축구 뒤흔든 스포츠 비리 사건에 대하여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309190152>

김연경과 사생결단 예고한 이다영, 오랜만에 활짝 웃었다

<https://www.wikitree.co.kr/articles/890041>

K2 안착한 천안시티FC, 선수협과 미팅 통해 프로 소명 교육 진행

<http://www.osen.co.kr/article/G1112188000>

대한국학기공협회, '제10회 천안 생활체육 국제국학기공대회' 열어

<https://www.sportsworldi.com/newsView/20230922507476>

전국체전 성공 개최 견인...4천여 자원봉사자 본격 활동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920_0002458160&cID=10809&pID=10800

롯데칠성음료, 대한장애인체육회 공식 후원

<http://www.bokuennews.com/news/article.html?no=233993>

울산 학생 선수들, 경찰청장기 사격대회 금2·동1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920_0002457748&cID=10899&pID=10800

제주특별자치도, 2023 IFBB 동아시아 선수권대회 성황리에 종료

<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352275?ref=naver>

호남대, 학생 선수 대상 '스포츠 인권교육' 실시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52913>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